소림축구? 28일 화순 다지리경기장에서 벌어진 제49회 전남도민체전 축구 예선 곡성-해남 경기중 양측 응원단이 경기장에 난입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화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천안함 애도' 경건하게 치른다더니…

도민체전 축구 빗속 난투극

곡성-해남 경기, 선수·응원단 뒤엉켜 … 2명 중상

전남도민체전 축구장이 난장판으로 변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애도기간(25~29일)에 열리는 행사임을 감안, 경건하게 치르기로 한 제 49회 도민체전 축구경기 도중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이를 지켜본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난투극은 28일 오전 축구 예선 곡성-해남의 경기가 열린 화순 다지리 경기장에서 발생했다.

대회 관계자와 선수들에 따르면 난투극은 후반 종료 5분여를 남기고 드리블하던 곡성군 선수 A씨를 해남군 선수 B씨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0-3으로 경기에 뒤지고 있던 해남군 선수 B씨는 A씨가 오버 액션을 한다며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이를 지켜보던 양측 선수와 응원단이 운동장으로 몰려들면서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다.

이날 난투극 과정에서 곡성군 응원단 유모(60)씨가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선수로 이날 경기에 참여했던 유씨의 아들(30)도 코뼈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도민체전은 국가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기할 경우 전남 시·군의 예산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강행됐다. 이에 따라 주최측은 축하 행사를 취소하고, 경기전 묵념·조기 게양 등 애도 분위기를 유지했으나 이번 집단난투극으로 지역화합을 꾀하기 위해 개최된 도민체전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대회 주최측은 폭력에 관련된 선수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순경찰도 집단난투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화순=서승원기자 swseo@

위험천만 '기절놀이' 자칫하면 '살인놀이'

초·중학교 유행 … 해남서 1명 입원·전북선 사망

최근 전남지역 일부 초·중학생들 사이에 생명을 위협하는 이른바 '기절놀이'가 유행하고 있어 교육당국과 학부모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기절놀이'는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강하게 눌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해 뇌에 산소 공급을 차단, 저산소증으로 인해 일시적인 실신을 불러오는 매우 위험한 장난이다.

이 장난이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것은 실신하기 직전 일종의 환각현상에 의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근거없는 속설 때문이다.

28일 전남도교육청과 학교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해남 모 중학교에서 기절놀이를 했던 1학년 A군이 수업이 끝난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두통 등을 호소, 해남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군은 이날 3교시 수업 후 쉬는시간에 친구 4명과 기절놀이를 했으며, 이 학교에선 이날 하루에만 2차례나 기절놀이가 있었다.

A군을 치료중인 해남종합병원 정상명 신경외과장은 "MRI 등 정밀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억상실과 집중력 저하 등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기절놀이'는 놀이가 아니라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으로, 저산소증에 따른 뇌경색 등의 합병증은 물론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에는 전북의 한 초등학생이 기절놀이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 같은 학생들의 위험한 기절놀이를 알고도 병원 후송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은 출장을 이유로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비운 상태다.

이 학교 교사는 "A군이 4교시 이후 어지럼증을 호소해 보건교사가 진료를 했으나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간 뒤 같은 현상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28일 최근 기절놀이가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할 것으로 보고 각 학교에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취객 돈 훔친 택시기사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8일 술에 취한 여성의 손가방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개인택시 기사 박모(30)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자신의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P(19)양 손가방에서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링스헬기 승무원 4명 영결식 '눈물바다'

영암 해군 3함대, 유가족·장병 등 500여명 참석

진도 인근 해상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다 추락한 링스헬기의 승무원 4명의 영결식이 28일 영암군 삼호읍 해군 제3함대 체육관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김중련 합참차장, 동료 장병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 고인에 대한 경례로 시작된 영결식은 약력보고와 임종철 3함대사령관의 조사, 추도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조총 및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이 시작되자 유가족들은 고인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또 고(故) 권태하(32) 소령을 시작으로 고인에 대한 약력보고가 시작되자 식장은 유족들과 동료 장병들의 흐느낌으로 눈물바다를 이뤘다.

장의위원장인 임종철 3함대사령관은 조사에서 "복받쳐 오는 슬픔에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로 막는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대들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사고 헬기는 지난 15일 밤 8시58분께 진도군 동남쪽 14.5㎞ 해상에서 초계 임무 수행 중 추락해 조종사 권 소령과 임호수(33) 상사 등 2명이 숨지고, 홍승우(25) 대위, 노수연(31) 상사 등 2명은 실종된 상태다.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홍 대위와 노 상사는 입대 당시부터 부대에 보관중이던 머리카락과 유품 등으로 장례를 치렀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또 편의점 강도

광산구서 13만원 빼앗아

28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편의점에 20대로 추정되는 강도가 침입해 혼자 있던 여종업원 김모(20)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에서 김씨는 "매장 물건정리를 하다가 카운터 앞으로 갔는데 (범인이)갑자기 흉기를 들이대면서 쇼핑백에 돈을 담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은색 점퍼와 운동화, 초록색 모자, 마스크 차림의 용의자를 쫓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

못 믿을 피자 전문점

7곳 중 1곳이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등 위법

광주시 위생점검

광주지역에서 영업중인 피자 전문판매·배달업소 7곳 중 1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위생기준을 초과한 포장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28일 "지난 6일부터 3일간 지역 내 피자 전문판매·배달업소 48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4.6%인 7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던 광주시 서구 풍암동과 북구 용봉동의 업소는 각각 영업정지, 위생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나머지 5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번 점검에서 피자 포장박스, 박스 내 종이, 샐러드 등 103건을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피자 포장박스 40건 중 14건, 박스 내 종이 36건 중 1건에서 최고 145mg/L에 달하는 증발잔류물이 검출되는 등 15건이 증발잔류물 기준치(30mg/L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기준을 초과한 용기·포장지 제조업체와 피자판매업소 명단을 해당 업소가 위치한 시·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만취 50대 에어컨을 화장실로 착각

쌍나팔

○…만취한 상태에서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을 화장실로 착각해 소변을 본 50대 남성이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서행.

○…2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4·광주시 동구 동명동)씨는 전날 밤 11시50분께 동구 동명동 P음식점 바닥에 '실례'를 했다가 장판값 변상 문제를 놓고 주인 송모(여·56·광주시 서구 풍향동)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송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날 오후 7시께 P음식점에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한 시간 뒤에 잠에서 깨어나 옆에 있던 에어컨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 노크를 하고 그 자리에 소변을 봤다는 것.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